

# KIA 서건창 “고향서 최고의 시즌…내년도 자신 있다”

‘우려의 시선’ 속 이적…‘살아있는 교과서’ 존재감 과시  
“결혼으로 책임감 생기고 안정감 들어”…FA 결과 주목

“의미있던 시즌, 결혼으로 마무리합니다.”  
올 시즌 고향팀 KIA 타이거즈에서 우승 멤버로 활약한 내야수 서건창(35)이 14일 서울 세빛섬 플로팅이일랜드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나성범, 김태균, 김선빈 등 올 시즌을 함께 한 ‘89친구’들이 이 미 학부형이거나 ‘예비 학부형’인 것을 감안하면 늦은 결혼이다. 그만큼 서건창은 많은 축하 속에 ‘새신랑’으로 사람들 앞에 서게 된다.  
올 시즌을 돌아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는 서건창이다. 사연 많았던 몇 년을 뒤로하고 KIA에서 베테랑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었고, 짜릿한 우승의 순간도 함께 했다.  
서건창은 “팀도 우승했고, 개인적으로는 뜻깊고 굉장히 의미가 많았던 시즌이었다”며 “처음 KIA에 왔는데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셨다. 나 혼자 했던 게 아니라 주변에 도와주신 분들 많았다. 많은 도움을 받아 올 시즌 보낼 수 있었다.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사실 서건창의 영입을 두고 우려의 시선은 있었다. 최근 2년 LG에서 많은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만족할 성적도 얻지 못했다. 2루에는 ‘동갑내기’ 김선빈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활용도에 관한 이야기

이다. 괜찮다고,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게 이야기해 주려고 했다. 나도 그런 부분에 도움을 많이 받았었다”고 말했다.  
또 “나도 어렸을 때 선배들 보면서 컸고, 도움을 많이 받았다. 자연스럽게 그 위치에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다. 나 또한 위에 아직 선배가 계시는데, 각자 위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각자 위치에서 어우러져 올 시즌 팀이 좋은 결과를 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친구들과 함께 빛나는 순간을 보냈다는 것도 의미가 있었다.  
서건창은 “이렇게 팀에서 4-5명 동기가 있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부분이 재미있기도 했다. 친구 중에 주장도 있고, 각자 역할이 있었다. 나는 그냥 팀에 적응하면서 중간 정도 역할을 한 것 같다(웃음). 내가 도와준 것은 없고, 도움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고향팀 KIA 타이거즈에서 우승 멤버로 활약한 내야수 서건창이 14일 결혼식을 갖고 ‘새신랑’이 된다.

〈KIA 타이거즈 제공〉

그라운드에서 다시 조명을 받았던 시즌, 후배들의 활약은 2014 MVP 서건창의 이름을 다시 소환하기도 했다.  
KBO리그 역사상 첫 200안타 고지를 넘었던 선수, 최다득점 기록에는 서건창의 이름이 있었다. 올 시즌 그가 가지고 있던 최다 안타(201) 기록·득점(135) 기록은 각각 롯데 레이에스와 팀 후배 김도영에 의해 깨졌다.  
‘타이틀 홈런’ 자리를 내줬지만 서건창이 기록을 작성한 2014시즌은 144경기가 아닌 126경기 체제

였던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기록이다.  
서건창은 “기록은 언젠가는 깨지는 것이다, 득점 기록은 같은 팀 후배가 깨서 더 기분 좋았다”며 “도영이는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이미 훌륭한 선수다. 팀도 잘 됐고, 본인 것도 잘했기 때문에 응원하면서 도영이가 기록을 만들어가는 것을 지켜봤다”고 이야기했다.  
최고의 시즌을 보냈지만 서건창의 2025시즌 밑그림은 아직 그려지지 않았다. FA 선언을 한 그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서건창은 “운동도 하고 예년하고 크게 다를 것 없이 보내고 있다. 올 시즌 (기술적으로) 변화를 줬는데, 새로운 걸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준비했던 게 잘 나왔던 것 같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내년도 기대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다. 결혼도 큰 동기부여가 된다. 책임감도 생기고, 안정감도 든다. 그게 가장 큰 에너지인 것 같다”며 “많은 응원 보내준 팬들과 최고의 시즌을 보낼 수 있게 해준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K리그 레전드’ 김현석, 전남 도약 이끈다

신임 감독 선임… ‘베스트11’ 6회·득점왕·MVP 등 ‘화려한 이력’

전남드래곤즈가 ‘김현석호’로 2025시즌 승격에 도전한다.  
전남은 지난 10일 제16대 사령탑으로 김현석(사진) 전 충남아산FC 감독을 선임했다.  
현역 시절 ‘가물치’라는 별명으로 통했던 그는 울산 소속으로 리그컵 포함 373경기에 출전해 111골, 54도움을 기록했다. 6차례 K리그 베스트11에 선정된 그는 1996년에는 K리그 MVP, 1997년에는 득점왕, 2000년에는 득점왕을 차지했다.  
2003년 울산에서 은퇴를 한 그는 이후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울산 코치로 활동했다. 이어 2014년 강릉중흥고 지휘봉을 잡은 그는 2017 전반기 전국 고등 강원리과 우승 등을 이끌었다.  
이후 울산대학교 감독과 울산현대 유소년 강화부장을 맡은 김현석 감독은 2022년 사무국장으로 충남아산FC와 인연을 맺었다. 올 시즌에는 2024년 충남아산 감독을 맡아 K리그2 준우승을 지휘

했다.  
대구FC와 승강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4-3 승리를 거뒀던 충남아산은 2차전 연장혈투 끝에 1-3으로 지면서 1·2차전 합계 5-6을 기록, 승격이 무산됐다.  
김현석 감독은 승격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2024 시즌 K리그2에서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구단 사상 첫 ‘이달의 감독상’ 주인공으로도 선정됐다. 김현석 감독은 지난 9월 5경기에서 4승 1무(승점 13)로 충남아산의 돌풍을 일으켰고, 이달의 감독상도 차지했다.  
승격 문턱에서 아쉬움의 눈물을 흘렸던 김현석 감독은 ‘전통의 강호’ 전남의 도약을 이끌게 된다.  
전남은 지난 2018년 K리그1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구단 사상 첫 강등 아픔을 겪은 뒤 6시즌째 승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올 시즌에는 한때 2위까지 치고 올랐지만 4위로



정규시즌을 마감한 뒤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했다.  
서울이랜드와 승강플레이오프 티켓을 놓고 플레이오프에서 격돌했던 전남은 플라카와 유재석의 연속골로 2-0의 리드를 잡았지만, 2-2 무승부후 경기를 마무리하면서 서울이랜드에 승강플레이오프 티켓을 내줬다.  
이장관 감독을 대신해 김현석 감독으로 새 판을 짜게 된 전남은 17일 상경례를 시작으로 2025시즌 승격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게 된다.  
김현석 감독은 “전남드래곤즈와 함께 승격에 도전하겠다”며 “전남과 함께하게 돼 기쁘다. 전남은 과거 끈끈한 축구로 한국축구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고, 열광적인 지역민들과 서포터즈분들이 동행하고 있다. 전남도민들이 응원하는 K리그1 승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전할 것이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

## 윤이나, 내년부터 LPGA 퓌드

Q시리즈 8위로 투어 출전권 획득

올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를 평정한 윤이나(사진)가 내년부터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로 무대를 옮긴다.  
윤이나는 11일 미국 오클라호마주 모빌의 매그놀리아 그로브골프클럽 크로스 코스(파72)에서 열린 LPGA투어 퀴리파인(Q)시리즈 최종전 마지막 5라운드에서 1언더파 70타를 쳐 8위(15언더파 343타)에 올랐다.  
윤이나는 기대대로 상위 25명에게 주는 내년 LPGA투어 출전권을 손에 넣었다.  
전날 기상 악화로 순연된 LPGA투어 Q시리즈 5라운드에서 3번 홀까지 치렀던 윤이나는 잔여 경기에서 버디 2개를 뽑아내고 보기 1개를 걸며였다.  
2022년 신인 때 오구 플레이를 뒤흔게 신고해 3년 출장금지 징계를 받아다가 1년 6개월로 경감된 덕분에 올해 KLPGA투어에 복귀한 윤이나는 상금왕, 대상, 최저타수상 등 주요 개인 타이틀 3관왕에 올랐다.  
“더 큰 무대에서 내 한계에 도전하고 싶다”면서 미국 진출을 마음먹은 윤이나는 “LPGA투어 신인왕에 도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발군의 장타력에 스핀이 많고 탄도 높은 고품질 아이언 샷과 웨지 샷을 구사하는 윤이나는 LPGA투어에서도 통하는 수준급 경기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윤이나가 목표대로 LPGA투어에서 신인왕에 오르려면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투어 최정상급 선수로 군림한 아마사타 미유, 이와이 치사토와 아키에 자메 등 일본 선수들과 힘겨운 경쟁을 치러야 한다.  
JLPGA투어에서 통산 13승을 거두고 2022년과 2023년 상금왕에 올랐던 아마사타는 Q시리즈 5라운드에서 8언더파 64타를 몰아쳐 합계 27언더파 331타로 압도적인 1위에 올랐다.  
JLPGA투어에서 올해 3승을 포함해 통산 6승을 따낸 이와이 치사토는 21언더파 337타로 2위에 올랐고 치사토의 쌍둥이 언니인 여기에는 공



동 5위(16언더파 342타)로 LPGA투어에 나란히 진출했다.  
LPGA투어에 자메 선수는 언니카와 살로타 소렌스탐, 에리아와 모리야 쥬타누간, 그리고 제사카와 넬리 코르다 등이 있지만 쌍둥이는 이와이 자메가 처음이다.  
JLPGA투어에서 작년까지 3차례 우승한 요시다 유리는 9위(13언더파 345타)로 Q시리즈를 통과했다.  
JLPGA투어에서 올해 7승을 쓸어 담고 상금왕과 대상을 휩쓴 뒤 LPGA투어 토토 저팬 클래식에서 우승해 내년 LPGA투어에 입성하는 다케다 리오도 강력한 신인왕 후보다.  
올해 LPGA투어에서 부진해 투어 카드를 지키지 못했던 박금강과 주수빈은 공동10위(12언더파 346타)와 공동 13위(11언더파 347타)로 내년 출전권을 확보했다.  
1988년생 이정은은 공동 36위(4언더파 354타), 이세희는 공동 50위(1언더파 357타)에 그쳐 LPGA투어 출전 자격을 얻는데 실패했다.  
/연합뉴스

## 굿바이! 구자철

2012 런던 올림픽 축구 동메달 등 26년 선수생활 마감

2012 런던 올림픽 남자축구 ‘동메달리스트’이자 한국 축구 대표팀의 미드필더로 맹활약했던 구자철(35·제주 유니온)이 26년 동안 정들었던 축구화를 마침내 벗는다.  
제주 구단 관계자는 11일 “구자철이 올 시즌을 마지막으로 더는 현역 선수로 뛰지 않기로 했다.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자철이 지도자 자격증을 B급까지 따놓은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A급과 P급을 계속 따기로 했지만, 시간이 필요한 만큼 구단에서 은퇴 이후 어떤 역할을 맡을지 계속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초등학교 때인 10살 때 축구화를 신은 구자철은 26년 동안의 현역 생활을 마무리하고 ‘제2

의 축구 인생’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2007년 K리그 신인 드래프트 때 3순위로 지명돼 제주 유니폼을 입은 구자철은 데뷔 시즌부터 정규리그와 컵 대회에서 총 16경기에 출전, 1골 2도움을 기록하며 재능있는 중앙 미드필더로 인정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2007년 11월 아시아축구연맹(AFC) U-19 챔피언십 예선을 시작으로 연령별 대표에 발탁됐고, 2008년 2월 동아시아축구선수권대회를 통해 A매치 데뷔전을 치렀다.  
공격형 미드필더와 중앙 미드필더로 맹활약한 구자철은 마침내 2011년 1월 아시안컵에서 득점왕(5골)을 차지하며 유럽 스카우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구자철은 아시안컵을 마치고 곧바로 독일 분데스



리가 볼프스부르크와 계약, ‘백리거’의 꿈을 이뤘다.  
볼프스부르크를 시작으로 마인츠, 아우구스부르크(이상 독일)에서 활약한 구자철은 2019년 중동으로 동지를 옮겨 알가라파, 알코르(이상 카타르)를 거쳐 2022년 3월 ‘진정팀’ 제주로 복귀했다.  
앞서 구자철은 2019년 1월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2019 아시안컵을 마지막으로 대표팀 유니폼을 먼저 반납했다. 구자철은 태극마크를 달고 아시안컵 세 차례(2011·2015·2019년)에 나섰고, 월드컵 무대도 두 차례(2014·2018년) 참가하며 7경기 19골의 기록을 남겼다.  
/연합뉴스